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MY HUSBAND'S WIFE

가제 : 내 남편의 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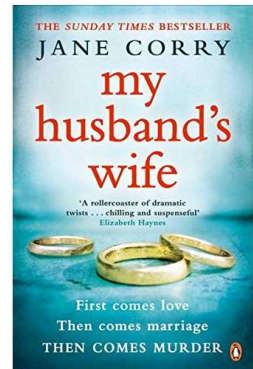
저자 : Jane Corry

출판사: Penguin

발행일: 2016년 8월 25일

분량 : 544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 「선데이 타임스」 스릴러 베스트셀러 톱 **10**, 전자 책 포함 **10**만권 이상 판매된 화제의 데뷔작
- *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덴마크, 브라질, 폴란드, 라트비아, 체코, 헝가리, 러시아, 터키 판권 계약 체결
- * “기발하고 독창적이며 중심에 어두운 삼각관계가 숨겨진 복합적인 이야기. 마지막 장까지 붙들어 놓는 놀라운 스릴러”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BEHIND CLOSED DOORS**」의 작가 **B. A. Paris**

스물다섯, 아직 어린 나이였던 릴리가 그래픽 디자이너인 에드와 결혼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2000년, 새로운 천 년이 시작되는 해에 릴리는 결혼도 하고, 런던에서 변호사로 첫 번째 사건도 맡았으니 다시 태어난 기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 들 만도 했다. 에드와의 만남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러브스토리였다. 두 사람은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고 에드는 두 번째 데이트에서 바로 릴리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그렇게 뜻뜻한 신혼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런던에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잘 꾸민 아파트도 마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언젠가 풀 타임 화가로 그림 그리는 일에만 전념하고픈 꿈을 간직한 에드는 광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릴리는 형법전문 변호사로 일을 시작한다. 하지만 비밀이 너무나도 많았다. 릴리와 에드, 두 사람 모두.

조 토머스는 릴리가 변호사로서 맡은 첫 번째 사건의 살해 용의자였다. 조는 여자 친구를 죽이고 펄펄 끓는 물 속에 쏙서 넣은 잔혹한 짓을 한 범인으로 지목됐다. 게다가 상대가 누구건 자기 마음대로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남자였다. 아무리 변호인이지만 여자인 릴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이건만, 그녀가 느낀 감정은 너무나 뜻밖의 종류였다. 그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조는 릴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조를 보면서 부모님이 입양했던 오빠, 대니얼이 떠오른 것이다. 오빠의 죽음이 자

기 탓이라 여기며 살아온 릴리는 사실 에드와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과거의 기억은 에드의 헤어진 여자친구에게까지 질투심을 느끼게 만들고, 수시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편, 릴리와 에드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특별한 모녀와 아는 사이가 된다.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왔다는 프란체스카와 아홉 살짜리 딸, 칼라였다. 프란체스카 대신 부부가 칼라를 돌봐주는 일이 가끔씩 생기고,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칼라는 에드의 예술적 감각을 자극한다. 하지만 칼라는 또래의 평범한 아이들과 많이 달랐다. 생부는 만난 적도 없고 부적절한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엄마와 단둘이 지내는데다 학교에서 이민자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던 탓인지, 칼라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너무 일찍부터 떠올리는 그런 아이였다. 하지만 칼라에게는 옳은 길로 인도해줄 관찮은 어른이 아무도 없었다. 칼라의 초상화를 완성한 에드는 그 작품으로 화가로서 인정 받고 엄청난 성공을 하기에 이른다. 이야기는 여기서 긴 세월을 뛰어, 속내와 사연을 끄꽂 감춘 릴리와 에드, 칼라의 삶을 다시 들여다본다. 불안한 심리 상태 탓에 변호사로 성공하긴 글렀다는 자책과 달리, 릴리는 다니던 법률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공했다. 에드와의 사이에서 아이도 낳았지만, 불행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해 보이는 부부에게 변화가 찾아온다. 오래 전 이탈리아로 돌아가 법률을 공부하던 칼라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어린 칼라의 초상화 이후 딱히 성공적인 작품을 내지 못해 괴로워하던 에드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란 칼라를 보는 순간 추락 중인 자신을 살려낼 수 있는 건 다시 칼라를 그리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이들의 처참한 불행은 시작된다.

비밀을 숨긴 인물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위해 조금씩 계획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고, 각자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알쏭달쏭한 묘한 긴장이 이어진다. 완전한 악인도, 완전한 선인도 없이 삶에서 경험한 일에 따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면을 드러낼 수 있는지 보여주며 5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 무색할 만큼 흡입력 있게 비밀을 풀어 나가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인 코리(Jane Corry)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 글쓰기 교사로 일하고 있다. 3년간 보안 수준이 엄격히 적용된 재소자들이 모여 있는 교도소에서 상주 작가로 일하면서 스릴러 소설의 영감을 얻어 올해 여름, 위 작품을 데뷔작으로 발표했다.

제목 : THE MISS FORTUNE SERIES

가제 : 미스 포춘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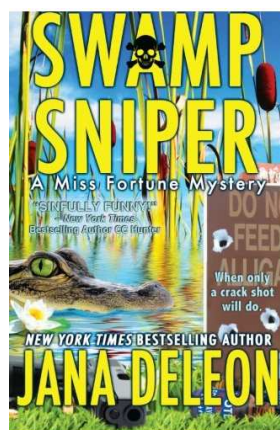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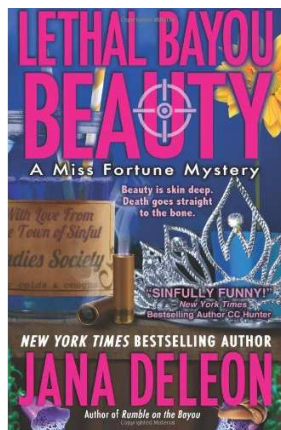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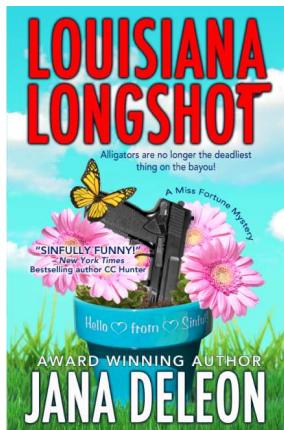
저자 : Jana DeLeon

출판사: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1, 2권) / Jana DeLeon (3권부터)

장르 : 소설/ 미스터리, 서스펜스

* 소니 픽처스 **TV**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 뉴욕타임스, **USA** 베스트셀러

*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9**권이 완성되어 팬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미스터리 시리즈



1권. 루이지애나에서 시작된 대범한 계획(Louisiana Longshot)

발행일: 2012년 6월 26일 / 분량: 248 페이지

아주 어릴 때부터 CIA 스파이로 일하기 위해 철저히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살아온 미스 포춘. 어느 날, CIA 작전에 따라 포춘이 실시한 암살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새어 나가고,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상이 포춘의 머리에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어 놓는다. 요원으로서의 활동은 고사하고 집 밖에 한 발짝도 내놓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린 포춘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상사인 모로우 국장은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다. 루이지애나 시골 마을에 얼마 전 돌아가신 자신의 이모 집에 몇 달 정도 머물면서 유산을 상속 받은 조카딸 '샌디 수' 행세를 하며 사태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것도 미인대회 출신에 도서관 사서가 직업인 걸로...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무기 다루기, 작전 수행하기, 암살 일정 수립하기가 전부이고 늘 혼자 조용히 살아온 포춘에게는 목에 걸린 현상금만큼이나 충격적인 계획이었지만, 달리 다른 방도는 없었다. 그러나 낮선 시골집에 도착한 첫 날, 집 뒷마당에서 웬 사람의 뼈가 발견되면서 이미 조용히 숨죽여 지내기는 글렀다. 문제의 유골은 5년 전 갑자기 사라진 노인의 것으로 밝혀지고, 그에게 평생 학대를 당하던 아내 마리까지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마리와 모로우 국장의 이모, 마지와 다 같이 친구였다는 아이다와 거티 할머니가 포춘의 앞에 나타나 뜻하지 않은 우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평범한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포춘의 좌충우돌 배꼽 잡는 실수가 이어지고, 남편의 살해 용의자로 찍힌 마리 할머니를 찾아내기 위해 나선 두 할머니와 포춘의 용맹한

싸움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2권. 늑지대 마을의 치명적인 미인(Lethal Bayou Beauty)

발행일: 2013년 3월 22일 / 분량: 274 페이지

처음부터 미인 대회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다닌 탓에, 잠시 숨어 지내려고 루이지애나에 머물던 포춘은 여름 축제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으로 발탁되고 만다. 심지어 자기밖에 모르는 여배우 팬시가 공동 주최자로 축제에 참여하면서 두 사람은 사사건건 부딪힌다. 그 와중에 포춘은 태어나 처음으로 아이라이너와 마스크라의 차이점을 깨닫고,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고데기로 펴는 법을 배우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데 팬시가 죽은 시체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그녀와 격렬히 다투던 포춘에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포춘은 CIA 요원인 것까지 들쭉날 위기에 처한다. 하는 수 없이 포춘은 진짜 범인을 직접 찾기로 결심한다. 그녀의 결에는 동네에서 ‘할매 마피아’로 불리며 진짜 범죄자보다 더 무서운 할매들로 소문이 자자한 아이다와 거티가 있으니 더 없이 든든하다. 1편부터 포춘의 마음을 사로잡은 잘생긴 마을 경찰 카터와의 밀고 당기는 로맨스와 함께 포춘과 친구들의 수사가 시작된다.

3권. 늑의 저격수(Swamp Sniper)

발행일: 2013년 10월 1일 / 분량: 264 페이지

마을 전체를 휘어잡는 ‘할매 마피아’로는 성에 안 찼는지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아이다 할머니 때문에, 포춘은 열혈 선거운동원으로 마을을 누비기 시작한다. 아이다의 경쟁 상대는 마을에 이사온 지도 얼마 안 된 수상한 남자, 테드 윌리엄스였다. 만의 하나라도 그가 당선된다면, 주민들이 소중하게 지켜온 마을을 ‘초짜’ 테드와 오만 방자한 그의 아내 파울레트가 얼마나 마음대로 엉망질 만들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선거가 아이다의 승리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졌다고 생각한 어느 날, 테드가 숨진 채 발견된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감기약으로 속여 몰래 밀주를 돌렸던 아이다가 혹시 경쟁자를 독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급기야 아이다가 경찰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는 지경에 이른다. 파울레트의 대책 없는 울부짖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포춘은 태어나 처음 친구가 되어준 아이다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테드와 파울레트 부부는 지금껏 선거 유세에 나선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묘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난다.

<저자 소개>

자나 드레온(Jana DeLeon)은 루이지애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2001년부터 주로 살인 사건과 평온한 마을 뒤에 숨겨진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 : SIX STORIES

가제 : 여섯 가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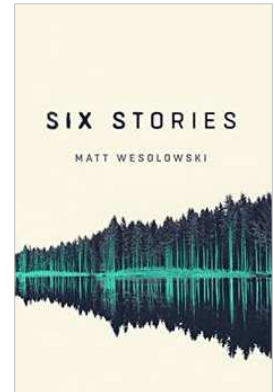
저자 : Matt Wesolowski

출판사: Orenda

발행일: 2017년 3월 1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2015년 블러디 스코틀랜드 범죄소설 페스티벌의 ‘피치 퍼펙트’ 부문 우승을 거머쥔 이야기**

*** 단편과 중편 호러 소설로 꾸준히 활약해온 작가가 처음으로 완성한 장편 스릴러**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라디오 쇼로 일컬어지는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This American Life)’는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도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다. 같은 제목으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팟캐스트의 영예를 안은 것은 물론, 에피소드 하나당 평균 100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해 왔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구성과 감동과 놀라움, 재미를 모두 안겨주는 방송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청취 자료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 라디오 쇼에서 프로듀서를 맡았던 사라 퀘닉과 줄리 스나이더가 만든 팟캐스트, ‘시리얼(Serial)’도 2014년 에피소드 마다 200만 명이 넘는 청취자를 끌어 모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시리얼’ 시즌 1은 한국인 여고생 이해민 양이 볼티모어에서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는 내용이다. 당시 해민 양의 남자친구가 범인으로 결론 지어진 경찰 수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주변 인물과 증거, 관련 자료를 모조리 재검토하면서 진상을 밝혀간다. 호러 단편과 중편을 꾸준히 써온 작가는 처음으로 완성한 스릴러 소설에서 바로 이 ‘시리얼’의 형식을 채택했다. 1997년 나무가 울창한 숲 한가운데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 톰 제프리 사건을 20년이 지난 2017년, 어느 기자가 처음부터 재조명하고, 그 내용을 팟캐스트를 통해 세상과 공유하며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던 비밀을 하나씩 캐 나간다. 톰이 죽음을 맞이하던 날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섯 명의 인물들이 전하는 각기 다른 여섯 개의 이야기, 퍼즐처럼 조금씩 드러나는 사건의 전말은 오싹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

1997년 여름, ‘스카클로 펠 삼림센터’에 스무 명 정도의 아이들이 찾아왔다. 야영장이며 주변 시설이 아직 제대로 들어서지 않았던 그때만 해도 입구에서 10분만 걸어 들어가면 주변 건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뾰뚱이 자란 숲이었다. 여름 캠프를 한답시고 모인 아이들은 별달리 할 일이 없어 낮에는 보드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면 먹을 것을 찾다가 누군가 어딘가에서 몰래 꺼내온 독한 위스키를 나눠 마시곤 했다. 톰 제프리의 시체가 발견된 날도 그렇게 흘러가던 어느 날 밤이었다. 거대한 언덕의 가장자리를 차지한 굵직굵직한 나무 기둥이 점차 얇아지는 곳, 사람들이 밟아서 만든 길이 습지로 변해가는 숲의 한가운데에서 톰이 발견됐다. 사건은 혼자 마

음대로 돌아다니던 소년이 '운 나쁘게' 사고로 저 세상 사람이 된 것으로 종결되었지만, 어딘가 수상하다고, 뭔가 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둘이 아니었다. 애초에 스무 명이 넘는 아이들은 왜 하필이면, 사냥꾼들이나 찾아가는 그 숲을 목적지로 정했을까? 사건 당시 숲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남겼다는 진술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도대체 그 여름, 숲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0년이 지난 2017년, 기자인 스콧 킹은 바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심한다. 그 동안 각종 복잡한 사건들을 날날이 분석하고 진상을 밝히고 그 과정을 자신의 팟캐스트로 공유해온 그는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활동해 왔음에도 인터넷 사에서는 엄청난 팬들을 거느린 스타가 되었다. 그는 톰 제프리의 죽음을 밝혀줄 인물로 여섯 명을 뽑아, 차례로 이들을 인터뷰한다. 스카클로우 펠 주변 땅을 가진 집안의 아들, 일곱 살 때 엄마와 함께 숲에 갔다가 우연히 모여 있는 아이들을 목격했던 소녀, 톰 제프리와 가깝게 지낸 친구와 당시 캠프에 참여했던 남학생들 등 게으른 것 외에 겉으로는 별 공통점이 없는 십대 아이들이 컴컴한 숲에서 벌어진 사건을 두고 무언가를 공모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전혀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독자는 스콧 킹이 들려주는 인터뷰 내용을 쫓아가며 나름의 추리를 펼치고, 말 없이 죽어간 톰 제프리가 어떤 아이였는지 알아가면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문제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끊임없이 의혹을 던지게 된다. 치열한 심리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끝까지 책장을 놓지 못하게 하는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매트 웨솔로스키(Matt Wesolowski)는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쿠쿠 영(Cuckoo Young) 글쓰기 워크숍에서 공부한 뒤 단편 호러 소설을 중심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Ethereal Tales」 매거진을 비롯해 단편 모음집 『Midnight Movie Creature Feature』, 『22 More Quick Shivers』에 작품이 실렸다. 2013년에 중편 데뷔작 『The Black Land』를 발표하였으며 2015년 '블러디 스코틀랜드 범죄소설 페스티벌(Bloody Scotland Crime Writing Festival)'에서 '피치 퍼펙트' 부문 우승자로 선정됐다.

제목 : CROOKED LITTLE LIES

가제 : 비뚤어진 거짓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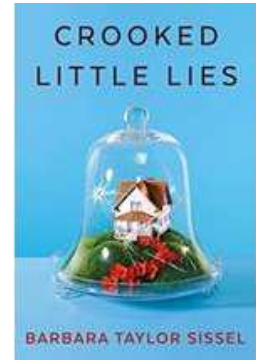
저자 : Barbara Taylor Sissel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381 페이지

분량 : 2015년 8월 1일

장르 : 소설/ 스릴러



*** 2015년 7월 '킨들 퍼스트(Kindle First)'로 출간 후 전자 책 포함 20만 권 이상 판매**

*** 이탈리아 판권 계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북 리뷰」 2015 '여름에 읽기 좋은 책'으로 선정**

10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 운전 중이던 로렌은 주간 고속도로에서 집이 있는 하디웁스 쪽 진입로로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이미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차를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로렌을 더욱 놀라게 했다. 자동차만 뽕뽕 달리는 이 위험한 도로에 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도로 가장자리를 빠르게 걸어가던 젊은 남자를 하마터면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을 뻔한 로렌은 화들짝 놀라 핸들을 꺾고 갓길에 일단 정차한 뒤, 사이드 미러로 방금 지나친 남자를 살펴보았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그 자리에 선 남자는 어딘가 낮이 익은 얼굴이었다. 스무 살을 조금 넘긴 듯한 마르고 키가 큰 그 청년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불과 며칠 후 그가 어딘가로 사라지고 로렌 자신이 그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남자는 노숙자 같지도 않았고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구석도 전혀 없었다. 열네 살, 열한 살짜리 두 아이를 둔 엄마인 로렌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은 모성애였다. 왜 이 사람은 위험하게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을까? 돌봐주는 사람이 없나? 로렌은 괜찮으냐고 말을 건넸다. 남자는 아주 잠깐 눈을 마주칠 뿐, 시종일관 로렌의 어깨 너머 먼 곳을 응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보 로플린이며, 여동생인 애니에게 줄 사탕을 사러 가게에 가는 길이라며 주머니에서 고무밴드에 묶인 지폐 뭉치를 꺼내 보였다. 놀란 로렌이 어서 돈을 집어 넣으라고 하자 그는 가봐야겠다며 홀연히 사라졌다. 그리고 로렌에게 말한 대로 도로 곁에 서 있는 주유소 옆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그를 그대로 둘 수 없었던 로렌은 지역 보안관에게 신고를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하지만 며칠 뒤, 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사실 보는 하디웁스에 사는 주민들 대부분이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보와 이복 남매인 애니는 마을 카페에서 일을 하고, 둘 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람들이 보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가끔 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 약간 바보같이 군다는 것, 나이에 비해 멍청하고 모자라 보였다는 사실이 거의 주를 이루었다. 로렌은 길에서 그를 만난 순간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과 걱정이 엄습했지만 다른 사람들이라면 주목했을 그 본

능적인 느낌을 쉽사리 털어놓을 수 없었다. 로렌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로렌은 2년 전, 심각한 추락 사고를 겪은 후 한동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뇌 수술을 받고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회복할 수 있었지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처음에는 걱정하고 감싸주던 남편과 드류, 켄지 두 아이도 자꾸만 실수하는 로렌에게 지쳐갔다. 가족들의 신뢰가 서서히 허물어지자 로렌은 자신이 느끼는 것, 떠올리는 것, 기억하는 것을 스스로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찰에 불려가 보와 만난 날의 일을 진술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로렌의 불운한 과거와 끔찍했던 사고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그녀가 결코 믿을 만한 목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런데 남편 제프도 어딘가 수상하다. 로렌을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보며 쥐락펴락하려는 제프의 태도는 거의 학대에 가까운 수준임이 드러난다. 그가 유난히 로렌에게 강조하듯 억박지르는 이야기들은 사실일까, 아니면 로렌이 자신의 기억처럼 저장하도록 만들기 위한 교묘한 술책일까? 제프가 로렌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며 토로하는 것은 실제로 로렌이 저지른 일들 때문일까, 제프 자신이 겉보기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일까? 이와 함께, 로렌의 여동생 타라가 마약 중독자로 소문이 자자한 그레그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보의 실종과도 관계가 있다는 조짐까지 나타난다. 로렌을 둘러싼 인물들이 분명 로렌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지지만,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그녀를 조종하려 하는지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렌은 보의 여동생 애니와 함께 사라진 보의 행방을 쫓는다. 애니는 처음 본 순간부터 로렌을 믿고 의지하며 두 사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찰이 놓친 단서까지 찾아내는 쾌거도 이루지만, 로렌의 사고 전력과 그녀가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로렌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미스터리와 서스펜스의 요소가 적절히 가미된 흡입력 있는 이야기 속에는 불운한 사고가 한 사람은 물론 그 가족과 마을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그리고 어떠한 거짓말보다도 충격적인 진실이 떠오른다.

<저자 소개>

바바라 테일러 시셀(Barbara Taylor Sissel)은 하와이 호놀룰루 출신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성장했다. 현재는 텍사스 주 오스틴에 살면서 소설가로 활동 중이다. 『The Last Innocent Hour』, 『The Ninth Step』, 『The Volunteer』, 『Evidence of Life』, 『Safe Keeping』 등을 발표했다.

NON- FICTION

제목 : ADA: THE ENCHANTRESS OF NUMBERS

가제 : 에이다: 숫자의 마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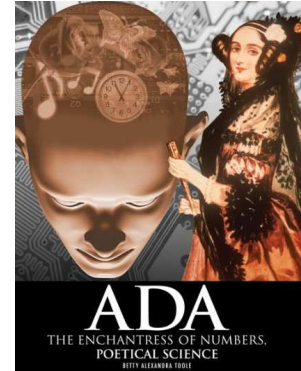
저자 : Betty Toole

출판사: Critical Connection

발행일: 2010년 10월 10일

분량 : 439 페이지

장르 : 전기



- *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불리는 여성, 시인 바이런의 딸,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특별한 생애
- * 상상력과 과학을 결합한 ‘시적인 과학’을 수학,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전략으로 여겼던 에이다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연구

영국의 낭만주의 대표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의 딸로 태어난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19세기를 살았던 대부분의 귀족 여성들과 달리 과학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인상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어릴 때부터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던 그녀는 상상력과 과학적 열정을 결합하여 스스로 만든 개념인 ‘시적인 과학’에 심취했다. 숫자, 음악, 패턴을 좋아하고 무한한 상상력을 과학적인 실험과 결합시키는 일에 큰 흥미를 느끼던 에이다는 초기 컴퓨터로 인정 받는 찰스 배비지의 ‘해석 기관’ 개발과 프로그래밍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라는 수식어도 따라다닌다. 이 특별한 여성,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삶에 큰 흥미를 느낀 저자는 20년 넘게 이 독특하고 영민한 19세기 여성 과학자의 삶을 조사하고 추적해왔다. 1992년 발표한 『에이다, 숫자의 마법사: 바이런 경의 딸이 쓴 편지와 최초의 컴퓨터에 관한 기록 모음(Ada, the Enchantress of Numbers A Selection from the Letters of Lord Byron's Daughter and Her Description of the First Computer)』를 다시 정리하고 업데이트하여 발표한 이 책은 에이다에 대한 저자의 새로운 관찰과 해석, 통합이 담겨 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생애를 세세한 부분까지 조명한 이 전기에서는 컴퓨터의 탄생과 역사를 함께 다루면서 에이다의 놀라운 업적을 보여준다.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수학자이자 기계 공학자 찰스 배비지의 연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동료이자 협력자였던 에이다가 그와 직접 주고 받은 서신을 보면 두 사람이 어떤 논의를 거쳐 ‘해석 기관’을 탄생시켰는지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에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마다 수학, 음악, 체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호기심과 열정을 느꼈던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저자는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생

애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과 사실을 하나로 모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에이다가 오늘날 사용되는 컴퓨터 혁명을 예측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요한 개념인 ‘제어문’ 개념을 소개하며 복잡한 알고리즘을 기계가 계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 에이다의 탁월한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한다.

상상력과 과학을 결합한 ‘시적인 과학’을 수학,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전략으로 여겼던 에이다는 압박감보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과 열정을 느끼며 연구에 몰두했다. 저자의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연구 결과, 분석, 글이 잘 어우러져 컴퓨터의 탄생과 여성의 역할에 호기심을 느끼는 독자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연대표

가계도

인물 소개

과학의 삼위일체

1. 격변의 시대, 사랑 받으며 자란 아이(1815- 816)
2. 아버지의 죽음, 고양이, 비행기(1815- 1816)
3. 대화 논쟁, 배기지와 만난 에이다, 무지개(1829- 1834)
4. 계산기에서 각기 다른 엔진으로(1833)
5. 내 마음의 일부처럼, 풀 수 없는 방정식 풀기, 만능 기계(1834- 1835)
6. 사랑과 결혼을 향한 지름길, 세 식구, 바이런의 탄생(1835- 1836)
7. 식구가 두 명 더 늘어나다, 백작부인이 된 에이다, 말재간(1836- 1839)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베티 알렉산드라 톨(Betty Alexandra Toole)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년 넘게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생애를 연구했다. 연구 내용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등 여러 간행물에 소개됐다.

제목 : IN THE SILENCE OF THE HEART

가제 : 심장의 침묵

저자 : Katherine Frank

출판사: Scribner

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원고 완료 예정)

분량 : 약 90,000 words

장르 : 에세이/역사



***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판권 계약 체결**

*** 자살로 생을 마감한 남편, 실패로 돌아간 자살 시도 후 ‘무엇이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가’라는 의문을 직접 해소하려 나선 저자의 광범위한 자살 연구**

1998년 12월,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까스로 건디며 살아온 아내는 십수년이 지난 2015년 4월부터 1년간 자살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자살 시도는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거두는 행위가, 아직 남아 있는 젊음과 건강, 욕구, 명성, 사랑을 모두 한꺼번에 버리는 일임을 자살하려는 사람도 잘 알고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자살하고픈 욕구는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무엇도 기억해낼 수 없이 ‘적당한 때’만 기다리는 허수아비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 강렬한 고통에 시달리던 저자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무엇이 사람을 그 뿌리치기 힘든 유혹에 빠지게 하는지는 깊은 의문으로 남았다. 이에 저자는 “왜 사람은 자살하는가?”라는 질문을 과감히 밖으로 내어 놓는다. 지극히 민감한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직접 경험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가감 없이 전하는 동시에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에 『자살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된 알프레드 알바레즈의 1971년 저서 『The Savage God』는 ‘문학의 관점에서 자살을 들여다보고, 왜 이 행위가 창의적인 사람들의 상상력에 색을 더하고, 어떻게 그러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는 알바레즈의 집필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저자는 서구 사회 중심이자 문학적 시각으로 한정된 이 책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한편, 과학, 유전학, 생화학적인 자살의 특성을 포함해 인터넷과 자살의 영향, 테러 목적의 자살 등 현대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자살 방식을 포괄한다. 특히 자살 행위를 해석하는 시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왜 그러한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을 살펴본다. 죽음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동물은 모든 생명체를 통틀어 인간이 유일하다는 과학계의 대체적인 판단을 감안할 때, 자살은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 행위는 악마에 홀렸거나 종교적 의미에서 죄로 여겨지기도 하고 사회적 범죄 행위로 간주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또는 일종의 병으로 여겨지기도 할 만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 왔다. 저자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다양한 자살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면서 무엇보다 자살을 둘러싼 터무니없는 오해와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보는 잘못된 시

각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특정한 자살 행위로 인류 전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나 변화를 해석하려는 시도에도 일침을 놓는다. 이를 위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이유가 자살 충동으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 “자살은 인간에게 최고의 위안”이라고 한 니체의 말에 담긴 의미를 짚어본다.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자살에 대한 깊은 통찰과 논란은 많지만 그만큼 잘못 이해되고 있는 자살의 이면을 전하는 동시에, 방대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인간에게 자살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특별한 책이다.

<목차>

- 1장. 자살의 역사: 간단 정리
- 2장. 그리스 로마 시대
- 3장. 17- 18세기
- 4장. 19- 20세기 초
- 5장. 1900- 2000년
- 6장. 21세기
- 7장. 과학과 자살
- 8장. 도움, 지원, 예방

<저자 소개>

캐서린 프랭크(Katherine Frank)는 저술가, 전기작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2002년 발표한 전기 『Indira Gandhi』가 있으며 현재 영국의 소설가 대니얼 디포(Daniel Defoe.)의 전기를 쓰고 있다.

제목 : SOCRATES IN LOVE

가제 : 사랑에 빠진 소크라테스

저자 : Armand D'Angour

출판사: Bloomsbury

발행일: 2017년 7월

분량 : 100,000 words

장르 : 전기



- * 고대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젊은 시절 사랑과 성장기에 초점을 맞춘 신선한 책
- * 소크라테스의 명언이나 업적보다 철학에 매진하게 된 계기와 한 남자로서의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주목한 특별한 전기

공자, 예수, 석가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으로 꼽히는 인물, “서양 철학의 2000년 세월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라고 단언한 영국 철학자의 정의에 등장하는 위대한 플라톤의 더 위대한 스승, 소크라테스는 술한 명언을 남긴 고대 그리스 철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철학적인 글을 쓴 적도 없지만 제자인 플라톤과 크세노폰 등을 통해 전해진 생전의 발언이나 가르침을 토대로 후세 사람들로부터 철학자로 존경 받게 되었다. 소크라테스가 윤리와 정치를 중심으로 제기한 문제와 고찰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인류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남다른 사상가로만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문학과 역사를 수십 년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저자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한다. 소크라테스가 70대에 ‘신성 모독과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독을 들이킬 때 나이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플라톤의 기록은 대부분 소크라테스의 생애 후반기에 펼친 활약과 가르침이 중심이고 역사와 철학계도 이 시기의 활동에 주목한다. 이로 인해 그의 청년 시절의 삶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자는 철학자이기 이전에 전투에 세 번이나 참가한 용맹한 전사이자 기하학, 천문학에도 능하고 조각도 배우며 몸과 마음을 다양한 분야에서 단련해온 다재 다능한 인물이었으며 50세 늦은 나이에 첫 결혼식을 올리기 전, 열정적으로 사랑에 뛰어든 한 남자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전환점, 그리스 본토를 점령하려는 주변 국가들과 한창 싸움이 치열하던 시절 용맹하게 전장에 나섰던 젊은 소크라테스가 30대 후반에 이르러 철학의 세계로 방향을 돌린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추적한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점차 발전한 서양철학의 근간을 마련한 소크라테스의 철학, 무엇이 그로 하여금 독보적인 사상가로 거듭나게 만들었을까? 저자는 이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전후로 그의 인생에서 벌어진 사건들, 그의 마음을 훔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한다.

“무엇이 훌륭한 인생일까?” “정의란 무엇인가?” “진실이 진실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랑, 용기, 성공이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러한 질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던지며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했다. 인간의 지식

과 행동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이러한 의문을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토록 깊이 있게,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70대가 되어서도 몸과 마음이 더 없이 강건한 상태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던 부당한 사형 선고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철학의 영웅으로 길이 남았다. 또래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젊은이였던 그가 어떻게 이처럼 독보적이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 이후의 업적보다 그 변화의 과정에 주목한 이야기들이 흥미를 자아내는 독특한 전기이다.

<목차>

1. 아테네의 소년
2. 사모스 섬에서 배운 것
3. 청년 시절의 황금기
4. 페리클레스 파
5. 아스파샤의 향기
6. 연인 소크라테스
7. 전투의 춤
8. 영웅 알키비아데스
9. 전환점

<저자 소개>

아만드 디안고어(Armand D'Angour)는 런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치는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튼 칼리지와 옥스퍼드에서 고전학자로 연구를 이어가면서 전문 첼리스트, 사업가로도 활동 중이다. 고대 그리스 역사와 문학 전문가로, 2011년 발표한 저서 『The Greeks and the New』 (Cambridge, 2011)로 큰 호평을 받았다.

제목: FIRE UP YOUR COMMUNICATIONS SKILLS

가제: 의사소통 능력에 불을 지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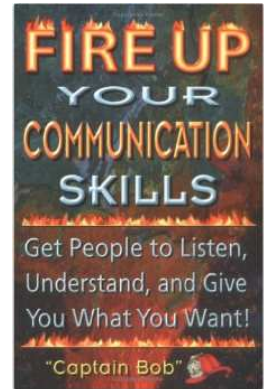
저자: Captain Bob Smith

출판사: Code 3 Publishing

발행일: 1997년 7월

분량: 315 페이지

장르: 자기계발



- * 베테랑 소방관 출신, 인기 강연자 겸 대인관계 전문가가 전하는 생활 속 의사소통 기술
- * 부족한 말솜씨, 잘못된 대화 방식으로 발생한 ‘비상상황’을 막고 수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 * “저자는 심리학 박사 학위도 없고 상담 전문가 교육도 받은 적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주는 해답을 알고 있다.” - 『*Uncommon Sense*』의 저자 데니스 E. 헨슬리 박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남의 말을 잘 알아듣고, 자신이 하는 말의 내용과 의도를 상대방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하는 것이 전부인데 참 그것이 쉽지 않다.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말들, 의도와는 딴판으로 전달된 말들은 일터는 물론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라는 설명도 몇 차례 반복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먹히지 않는 법이다. 의사소통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발전시키고 싶다는 바람과 필요성은 회사에서 인정 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서도 비롯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오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수십 년간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저자 역시, 일방적인 그 자부심은 원만한 가정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다. 아내가 자신이 생각한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저자는 베테랑 소방관답게, 불굴의 의지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비법, 저자가 직접 하나하나 실험해보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익힌 그 귀중한 정보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의사소통 기술을 비롯해 대인관계, 결혼생활, 섹스, 아이 키우는 법, 돈을 잘 벌고 잘 관리하는 법을 처음부터 통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크게 상관없이 누구나 이 부문에 있어서만은 ‘들은 것은 많지만 직접 겪어보지는 못한’ 초보자로 출발한다. 각자 부딪히면서, 이 각각의 분야에 도가 튼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경우도 있다. 저자는 자신이 소방관이었기에 적어도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비법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만은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걸잡을 수 없는 불길 속에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다른 직업보다 거칠고 정신적, 육체적인 압박이 심한 일인 동시에 타인을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고귀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웅’이라 일컬어진다. 저자는 바로 이 정신을 그대로 활용하여, 부족한 의사소통 기술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아내와의 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작한 이 노력은 자녀와 동료, 친구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로 발전되어 각종 강연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남들과 충분히 공유할 만한 값진 정보로 발전했다.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 변화를 줌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훨씬 더 끈끈하게 만드는 비법, 말 한 마디 잘못해서 관계에 방화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이미 불이 난 경우 차분하게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이 저자의 실제 경험담과 함께 생생하게 소개된다.

누구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책이다.

<목차>

캡틴 밥은 누구일까?

저자의 경고 겸 법적 책임에 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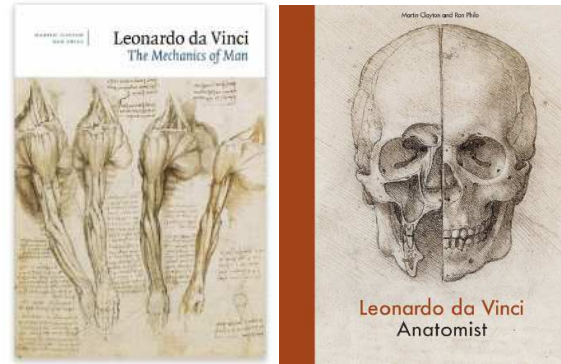
1. 인생의 값진 정보를 배우려면
2. 커뮤니케이션 수업
3. 자, 조사를 해본다 치자
4. 남성과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
5. 5대 1의 비율로 바뀌다
6.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하지?
7. 브로드웨이 연극
8. 명확하고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라
9. 미끼 조심
10. 붙들고 있지 말 것

(이하 생략 – 총 52장과 부록 A, B로 구성)

<저자 소개>

‘캡틴 밥’으로 불리는 밥 스미스(Bob Smith)는 소방관으로 28년을 근무하고 은퇴했다.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 왔다. ‘전미 강연가 협회’ 소속으로 대표적인 전문 강연자 목록(Who's Who in Professional Speaking)에도 이름을 올렸다. TV 토크쇼에도 다수 출연했다.

제목 : LEONARDO DA VINCI - Royal Collection
가제 : 레오나르도 다빈치 - 로열 컬렉션 시리즈
저자 : Martin Clayton, Ron Philo
출판사: Royal Collection Trust
발행일: 2010년 3월 / 2012년 7월
분량 : 160 페이지 / 256 페이지
장르 : 과학



- * **2019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망 500주년을 기념하기에 가장 적합한 책**
- * **두 책 모두 '영국 도서 디자인·출판상' 수상**
- * **해부학적으로 가장 세밀한 다빈치의 그림 'Manuscript A', 아이패드용 어플리케이션 제공**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대 최고의 해부학자이기도 했다. 1519년, 67세의 나이로 그가 세상을 떠나던 당시에도 서유럽 전역에서 유명한 화가로 알려졌을 뿐 가장 가까이 지내던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그의 과학적인 연구 열정과 성과를 알지 못했다. 이후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기록한 수천 페이지의 노트가 발견되어, 무려 1480년부터 화가로서의 열정만큼 과학적인 탐구에도 그가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1508년부터 1513년까지 약 10년간은 그림 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철저히 과학자로서의 연구에 몰두했다. 비상을 두뇌를 지닌 천재적인 인물답게 광학, 지질학, 식물학, 유체역학 등 그가 관심을 쏟은 과학 분야도 많지만 남겨진 기록들은 그가 인체 해부학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를 섬세하게 절개하는 손기술과 눈 앞에 드러난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분석 능력, 그리고 확인한 사실을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예술적 기술을 두루 갖춘 특별한 인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년 뒤 그의 사망 500주년을 기념하며 반드시 되새겨봐야 할 부분은 회화가 아니라 그의 해부학적 연구 결과일 것이다. 영국 왕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의 해부학적 분석과 세밀한 그림들로 구성된 이 두 권의 책에서 500년 전에 그려진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인체 해부도를 만날 수 있다.

1.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람의 구조(Leonardo da Vinci: The Mechanics of Man)

현재 영국 왕가의 거처인 윈저 성, 왕립도서관에 보관된 그의 '노트 A(Manuscript A)'는 1510년과 1511년에 실시한 해부와 근육, 뼈를 중심으로 기록한 인체 구조의 연구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노트에 담긴 모든 해부도와 함께 각 그림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페이지마다 인체 각 부위를 꼼꼼히 그려 넣고 그 유명한 거울 문자, 즉 거울에 비추어보아야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거꾸로 쓴 글자로 자신의 그림에 관한 메모와 궁금한 점, 관찰 내용을 기록했다. 이 책에서는 거울 문자가 기입된 원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일반적인 영어로 바꾼 설명을 첨부한 그림을 다시 보여주며 독자가 원래의 그림을 최대한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2. 레오나르도 다빈치: 해부학자(Leonardo da Vinci: Anatomist)

인체 해부에 가장 집중적으로 매달린 몇 년 동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약 서른 구의 시신을 분석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미세 구조를 해치지 않고 정확하게 절개하는 기술을 십분 발휘하고 이를 우아한 데생으로 그린 귀중한 결과물 87건이 이 책에 담겨 있다. 그가 남긴 기록으로 볼 때 아마도 해부학적인 연구 결과를 세상에 발표할 준비를 한 것으로 추정되나 1519년 사망하면서 개인 소장품으로 남게 되었다. 의도대로 공개되었다면 당시 유럽의 해부학 분야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제기될 만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해부도는 당대 그 어떤 해부도와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명료한 동시에 우아하고 후대를 깜짝 놀라게 만든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책은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함께 개발되어 해부도를 더욱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목차>

1.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람의 구조

- 1510년의 레오나르도: 해부학 노트 A
- 해부학 노트 A에 사용된 용어 풀이
- 해부학 노트 A
- 연구, 매체 자료, 참고문헌, 비교작
- 더 읽을거리

2. 레오나르도 다빈치: 해부학자

- 카탈로그
- 독자들에게
- 해부와 비율에 관한 초기 연구
- 부활: 앙기아리의 전투
- 100주년: 해부학 노트 B
- 신경학, 그리고 음성
- 뼈와 근육: 해부학 노트 A
- 생식기관
- 개, 조류, 황소: 빌라 벨치에서의 연구
- 심장
- 더 읽을거리

<저자 소개>

마틴 클레이튼(Martin Clayton)은 영국 왕실재단 로열 컬렉션 트러스트(Royal Collection Trust)의 인쇄물 부문 총괄책임을 맡고 있다. 『Castiglione: Lost Genius』 등 왕실 소유의 그림 작품을 출판물로 만드는 일을 담당해 왔다.

론 필로(Ron Philo)는 텍사스 대학교 생물학과 대학원 과정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GENDER LENS INVESTING

가제 : 성별로 바라본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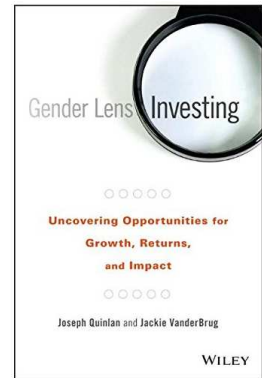
저자 : Joseph Quinlan, Jackie VanderBrug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11월 7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제/투자



- *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국제 투자 전략 분야에서 활약 중인 두 경제 전문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투자 전략, 여성의 경제적 영향력을 투자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
- * **경제 전체에서 여성의 막강한 영향력을 인지하고 놀라기만 하는 대신, 수익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토대로 삼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세상을 놀라게 한 기업가, 거대한 회사의 대표, 앞장서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까지, 여성이 전 세계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저 주목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흐름에 여성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여성 구매력 증가에 관한 새로운 분석 보고서나 여성의 건강이 향후 가장 규모가 큰 투자 기회라는 전망, 일본이 일명 ‘위미노믹스’로 불리는 여성이 주도하는 경제에 국가 전체 경제의 사활을 걸었다는 소식은 거의 매주 언론에 보도되고, 어느 나라든 국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마다 “여성이 번성해야 나라가 번성한다”는 견해를 밝히거나 하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CEO마다 “여성의 잠재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이 확실해진 여성들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온갖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한다. 법적 권한이 제한되고, 성적인 추행과 폭행에 시달리고, 아직도 남녀간의 부당한 임금 격차를 감수해야 하는 등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각자 국제 경제와 투자 전략 전문가로 활약 중인 두 저자는, 바로 이 모순적인 상황이 전례 없는 투자 기회라고 단언한다. 누구나 중요성은 알지만 깊이 들어가지 않은 세상, 경제에서 아직 제대로 된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자 무한한 가능성이 담긴 곳, 위미노믹스를 토대로 한 투자 전략의 모든 것을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경제적 번영과 투자에 성별의 격차라는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 제품, 회사, 경제분야를 평가하는 기준에 성별의 요소를 포함시키는 방법, 투자 선택 시 각 성별의 관점에서 향후 사회적 변화를 전망하는 방법, 성별에 따른 경제분석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탈바꿈하는 방안 등 신선하고 흥미로운 정보가 가득하다.

투자에 성별의 차이와 여성의 경제적 중요성을 기본 잣대로 포함시키는 방식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 책은 최초로 투자 분석에 성별의 개념을 통합시키고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경제서로, 이제는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여성이 거머쥔 강력한 경제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두 저자는 위미노믹스를 현실화하지 못하거나 그 중요성을 무시하는 기업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위기를 맞이하리라 확신하면서, 참체된 경기를 일깨울 각성제 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을 밝힌다.

<목차>

머리말

- 1장. 여성경제(위미노믹스), 그 규모를 가늠케 하는 지표들
- 2장. 중요한 건 여자들 이야, 이 바보야
- 3장. 세계로 뻗어간 여성경제
- 4장. 여성경제를 투자 기회로
- 5장. 새로운 자금 통로
- 6장. 직장의 안과 밖
- 7장. 핑크를 뛰어 넘어라
- 8장. 새로이 꿈틀대는 분야
- 9장. 지금부터 머물러야 할 출발점

<저자 소개>

조셉 퀴니언(Joseph Quinlan)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국제 자산관리·운용 부서에서 시장·주제별 전략팀 총괄책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The Last Economic Superpower』 등이 있다.

재키 밴더브룩(Jackie VanderBrug)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국제 자산관리·운용 부서에서 지속가능 플랫폼 리드 팀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다.